



해남군 마산면 신당부락에서 10년째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나준호(68)·김수엽(65)씨 부부가 참다래 하우스에서 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다.

## “아들이 권유한 참다래 자식처럼 키워요”

### ■ 해남서 10년째 참다래 농사 나준호·김수엽씨 부부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신선해 첫 아이의 커 가는 모습을 보는 듯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내와 함께 제 2의 신혼을 즐기고 있는 셈이죠.” 해남군 마산면에서 10년째 전원생활과 함께 참다래 농사를 짓고 있는 나준호(68)·김수엽(65)씨 부부는 요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99년 8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나씨는 퇴직식날 이삿짐을 챙겨 해남으로 내려왔다.

평소 전원생활을 꿈꿔왔던 나씨 부부는 노후 생활을 대비해 지난 95년 이곳에 농지 2천평(평당 1만4천 원)을 구입했다. 이후 당시 해남 참다래유통사업단에서 전산 업무를 맡고 있던 큰아들 경엽(41)씨의 조언에 따라 참다래를 심었다.

하지만,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의 편안한 삶을 생각했던 이들 부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처음으로 접한 농사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얕힌 데 덮친 격으로 나씨 부부가 구입한 땅도 참다래 농사를 짓기엔 부적합한 땅이었다. 참다래 농사의 성공 여부는 배수인데,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했다. 고민 끝에 복토작업을 결심하고 1년여 동안 다른 곳의 흙을 가져와 기존 농토 위에 덮어주는 일을 했다. 결과는 대 성공.

나씨는 “초보 농사꾼에게 2천 평의 참다래 농사는 큰 규모였고, 한때 모든 것을 접고 경기도로 돌아갈 생각마저 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일단 시작

한 일이나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매달린 것이 벌써 10년 세월이 됐다”고 말했다.

배수 작업이 완료되자, 말라죽던 참다래 나무가 되살아났고, 2000년부터 매년 12~18t을 생산해 3천여만 원의

싼 가격에 대부분 학교 급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중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 판매(문의 016-680-0896)를 시작했고, 전국에서 전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농사에 자신이 붙은 나씨 부부는 요

다만, 아쉬움 점은 5년 전 시작한 표고·느타리 버섯 재배를 포기한 것이다. 참다래의 경우 1년에 3~4개월 정도만 집중하면 되지만, 버섯은 1년 내내 매달려야 할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나씨 부부의 유일한 취미는 매주 일요일이면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해남읍 성당에서 예배를 보고, 인근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이다.

나씨는 “전원생활 하면 경치 좋은 곳에서 산책하고 책이나 읽는 삶을 생각하는데, 이는 실패의 지름길”이라면서 “열심히 일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보람도 느끼고, 지루함도 없고, 1석 1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내 김씨도 “처음엔 농사일을 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은 자라나는 농작물을 보면 큰 기쁨을 느낀다”며 “도시에 있는 자식들에게 내 손으로 직접 기른 농산물을 보내주는 것도 큰 기쁨 중 하나”라며 활짝 웃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처음 정착 후 준비 부족으로 많은 애로 느껴  
유기농 인증 얻어 대부분 학교 급식용 출하  
버섯 재배 포기하고 올해부터 벼농사 도전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

5년 전 참다래 나무 주변에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한 열소 4마리도 12마리로 늘어나 나씨 부부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나씨 부부는 참다래 농사 10년만인 올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는 경사도 맞았다. 유기농 참다래는 30% 정도 비

즈 벼농사에 도전중이다. 인근 2천 평 부지에 2년째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4만 평 규모의 벼 농사를 지어볼 계획이다.

나씨 부부는 준비 부족으로 고생했던 참다래 농사를 교훈 삼아 매일 벼농사 일지를 쓰고, 관련 서적을 바탕으로 농사 지식을 익혀가고 있다.

### ■ 나준호씨 부부가 전하는

#### 농부로 사는 전원생활 노하우

◇일을 해야만 늙지 않고 건강해 진다=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계획할 땐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꿈꾸는 데 이는 실패의 지름길이다. 자신에게 맞는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맛본다면 큰 성취감과 함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직접 심은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재미와 비슷하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농사를 결심했다면 농사에 대한 사전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간 노후 생활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일단 논문 1천권, 밭은 200평 정도의 소규모로 2~3년 정도 시범 재배를 해보는 게 좋다.

◇작물 선택에 신중하라=기본적인 농사는 쌀 경작이지만, 참다래나 배, 사과 등 과수원을 계획한다면 지역내 경작 여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구입한 농지가 계획한 농사에 적합한 지도 조사해야 한다. 이는 거주 마을 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된다.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라=귀농인이나 전원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내 경우엔 참다래 농사를 시작할 때 각종 시설비(7천 500만원)의 50%를 지원 받고, 용자 30%의 혜택을 봤다.

◇무분별한 농기계 구입은 금물=초보 농사꾼의 경우 트랙터와 콤팩트 등 농기계 구입을 권유받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농기계 임대 은행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로 농사를 지어주는 업자들이 많다. 농기계를 구입할 시에는 구입금액과 활용도 등을 고민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준호·김수엽씨 부부가 참다래 농장 내 잡초 제거를 위해 기르고 있는 흑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5년전 4마리를 구입했는데, 벌써 12마리로 늘어났다.

**제1회 한라산 등단 초특가 세일!!!**

**한라산 등산 초특가 세일!!!**

1박2일 79,000원

2박3일 99,000원

주최: 제주(주)뉴랜드호텔

**(주)제주무궁화관광**

**드디어! 무궁화호텔**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무궁화호텔 숙박 89,000원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주최: 제주(주)뉴랜드호텔